

투데이 칼럼

‘홍두께’ 관할소송에 ‘거북이’ 수산행정

‘아’닌 밤중에 홍두께 라는 속담이 있다. 홍두께는 다듬지 않은 나무를 동글동글하고 길며 굴곡지게 깎은 것이 원뜻이다. 이제 “예상치 않던 일이 벌어지거나 갑작스런 입장변화”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바뀌었다.

오랫동안 부안 위도 앞바다였던 곳 등을 고창군이 고창 앞바다라며 관할권 관할심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부안군은 “노립보 거북이 행정”을 하는지 최근에는 반박자료를 배포하고 부안군의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만금 33km 방조제 중 부안군은 가력도까지 4.7km만 차지하고 군산시와 김제시에 넘겨졌는데 부안군 남쪽바다를 뒷북행정과 녹장대처로 빼앗길 위기여서 군민 분노가 들끓는다.

군민들은 “고창군이 2016년 8월 관할수역 관할심의심판을 청구했는데도 부안군 수산행정 녹장대처로 위기를 초래했다”며 단일한 수산행정을 주민들이 질타한다.

이 해역은 부안위도와 고창구시포항 간 해역으로 2014년말 한국해양진흥공사해상풍력 발전단지 실증지역으로 확정되며 개발이인과 보상을 할 것으로 예상돼 고창군이 밭 빼르게 대응한다.

고창군은 “2018년 10월 ‘부안군이



이 옥 수
지방부 부안주재 국장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 관할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확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육지의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km)까지가 고창군 관할해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지난 10일 현재 현장점검에서 “관할해역을 공해상과 격리방식은 국가간 해상경계 확정 때도 쓰지 않는 방법”이라며 “행정적으로 잘못 그어지고 발행처 조차 인정치 않는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규범적 효력이 부정되었기에 현재가 합리적으로 경계를 확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은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가 불법적으로 효력을 갖는다고 하지

만 연도별 발행 국가기본도 해상경계 형태가 공신력이 떨어지고 발행처인 국토지리정보원도 국가기본도 상 해상경계는 도서(섬) 소속을 구분기 위해 적당한 곳에 표시한 것으로 관할해역 구분 경계선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안군과 부안군의회는 현재 청구까지 아무 대응이 없다가 뺨길 판이니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비 등으로 군민혈세만 낭비돼 군민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부안군은 “고창군이 주장하는 위도 앞바다 관할권 주장과 현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부안과 고창 지자체간 오랜 우호관계에 친목을 끼었고 지역갈등과 반목을 야기하는 행위”라며 “위도와 인근해역은 1,500년 이상 부안관할이었으며, 1963년 위도가 전남 영광에서 부안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돼 이후 50

년 이상 쟁송해역에 어업 인·허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수행 해오는 등 독자적 행정관할권을 부안군이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창군은 반세기 이상 부안군 행정권 행사에 마찰이나 이의제기도 없어 인근 지자체나 국민이 부안해역이라는 관습법적 사회적 확신이 인식된 상태나 최근 쟁송해역에 공력단지 조성이익 등을 차지하기 위해 양 지자체 오랜 묵시적 경계합의를 저버린 고창군 행위를 용인할 수 없음”을 강하게 언급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해상경계 기준이 되는 섬을 고려해 확정된 지점의 해상경계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합리적이고 해당해역에서 위도주민의 높은 생활의존도를 감안할 때 고창군 주장은 주민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처사로 관련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부안군의회도 지난 7일 “위도 앞바다에 대한 고창군의 관할권 주장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안관할이 명백한데 잘못될 여부가 떠나 수산행정 녹장대처에 군민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만약 이번에도 잘못되면 6만 군민이 ‘홍두께’를 들고 부안군 수산행정에서 난타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독자재언

신도불이 농산물 우리가 지키자!

최장기간 폭염이라는 여름도 어느덧 지나가고 초·석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땀물면서 들녘에는 한해 농사를 마무리 하는 농부들의 놀림이 바쁘다. 항상 이시기가 되면 한 해 동안 피 땀 흘려 가꾸어 수확한 농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린다.

최근에도 전북 완주군 관내에서 인삼철도 사건이 발생해 농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금년에는 병해·폭염·태풍으로 인해 모든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많이 올라 있어 농산물 절도가 더욱더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절도범들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 빈집이나 창고·비닐하우스에 들어가 귀중품이나 농산물을 훔쳐 재빠르게 도주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농축산물 도난예방을 위해 몇가지 안전수칙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외지차량 및 수상한 차량 기록하기 마을에 못 보던 차량 발견 시 차량번호와 색상 등 기록하기, 들뜬 수확한 농산물은 꼭 보관창고에 넣어 이중시정장치 하기 창고 입구를 농기계등으로 막는 등 바리케이트 설치, 셋째 절도범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농산물 건조, 적재하지 않기 수확한 농산물을 밭이나 도로변에 밭낫 없이 방치하지 않기, 넷째 CCTV 및 경보기 등 지위방범체계 구축 촉사, 창고, 비닐하우스 주변 설치 등이 있다.

가까운 파출소에 순찰 희망장소를 신청하면 파출소는 희망하는 불안장소를 우선적으로 순찰한다.

경찰에서는 정성스럽게 피땀 흘려 가꾸어 수확한 농산물 절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난예방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절도 우려지역을 선정 순찰을 강화 하고 있다.

육기통 진안경찰서 안전컨선팀장 권영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홍콩의 범람 수위



지난 16일 태풍 망콧의 강풍이 조금 잦아진 오후 홍콩 선창가에 사람들이 범람한 길에서 무릎을 꿇고 걸어가고 있다. 태풍이 빠져나간 필리핀에서는 통신 재개와 함께 사망자가 50명이 넘게 늘어났으며 최고등급 경계의 홍콩에서는 간단한 부상자만 100여 명에 그쳤다.

사설

타 지역의 전북 발목 잡기 가만들 일 아니다

타 지역의 전북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둘 일이 아니다. 전북은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그 낙후를 벗어나 보려고 전북도는 도민들과 함께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고위 공직자들은 그런 몸부림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가보다. 사사건건 탄핵을 걸면서 발전시도를 방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성원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자기들 욕심만 내고 있으니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 부안과 함께 전주를 세번째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부안상공회의소가 즉각적으로 강력 반발 하였다.

전주 제3 금융도시 육성 건은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의도가 위해진다.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키우면 전북이 낙후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리라는 마음 씀이 위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부안상공회의소는 초장부터 목살하고 나선 것이다. 그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과욕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타 지역의 전북 발목 잡기에 기가 꺾여서는 안된다. 전북도는 지역 발전 의지를 강고하

게 다져야 한다. 최근들어서 전북 발전을 해치는 발인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각오를 단단히 해야겠다. 저번에 이해찬 여당 대표가 새만금 공항은 불가하다며 전북도민의 염원에 친목을 끼얹은 것은 두루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그에 박수라도치듯 충청도나 전남 지역에서 정복 새만금 신공항 건설 의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불쾌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꾸준히 밀어붙여야 한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지역 발전은 백년하청이다. 전북도는 발전의지를 말로만 표출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전북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시나브로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그 과정이 미미하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관여한 세종시는 그 역사가 짧음에도 눈부시게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그 같은 불균형은 시정돼 마땅하다.전북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뒤쳐져 있는 까닭은 분명하다. 영동한 발안들에 휘둘리고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더욱 강고하게 다져야겠다.

전북도는 제몫을 대외적으로 힘차게 말해야 한다

도민들이 제몫 찾기를 열망하는 지금이다. 그래서 또 다시 전북도에게 그것을 주문하고 싶은 오늘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전북도의 강력한 발언이 소망스러운 때이다. 전북도는 제 몫을 지키는 열정을 가져야겠다. 그러려면 먼저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북의 몫을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문은 물론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지난 날 반복해 말했던 바, 지역의 발전이 시원치 않은 이유를 전북도 관계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른 고장은 내일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유감이다.

전북도는 제 몫 확보를 위해 끈질긴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제몫 찾기에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 전북의 공공기관들이 통합을 명분으로 광주와 전남에 예측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광주와 전남이 전북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권이 크다고 해서 그래야 할 이유는 없는데 말이다. 전북은 독립된 지자체이지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가 아니다. 최근에 광주와 전남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여간 가관이 아니다. 새만금 신공항 판죽결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전북은 광주나 전남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지금도 그것은 그렇다. 많이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서두에 했던 말을 또 하거니와 전북도는 제몫을 대외적으로 말해야 한다.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위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매번 말했거니와 다른 지자체의 발전상과 비교해보면 이쪽의 발전은 발전 같지가 않다. 고장의 낙후 때문에 도민의 마음 고생이 심함을 전북도는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겠다.전북이 대외적으로 홀대를 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전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헤아려야 한다. 영남과 충남에 치이고 광주 전남에 밀려 세력이 한 두 해가 아니다. 지역의 오랜 낙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가 결코 아니다. 다시 강조해 말하거니와 전북도는 제몫을 대외적으로 말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